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 ◎ 1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4만 7천 명 증가하여 추세적으로 증가폭이 축소
 -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64.8%로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
- ◎ 1월의 고용동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전환
 - 남성의 취업자 수 증가폭 크게 축소
 - 농업 취업자 수 큰 폭으로 감소
-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쉬었음'임
 - 육아의 증가도 크게 영향을 미침
- ◎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는 50대 이상과 청년층의 취업자 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36만 5천 명 증가(50대 19만 1천 명 증가, 60세 이상 17만 4천 명 증가)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청년 인구 감소(4만 8천 명)에도 불구하고, 2만 7천 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10대의 큰 인구 감소를 극복한 취업자 증가와 20대 초반

- (20~24세)의 큰 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 증가세가 두드러짐
 - 30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 30대 후반의 인구 감소를 넘어선 취업자 수 감소에 기인함. 그러나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40대는 인구 감소가 크지 않음에도 감소로 전환
- ◎ 종사상 지위로 보면, 상용직과 임시직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세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세는 지속
- 상용직은 35만 3천 명 증가. 상용직 증가는 50대(19만 4천 명), 60세 이상(9만 5천 명)이 주도. 업종별로는 제조업(16만 9천 명), 보건복지업(11만 7천 명)이 주도하였음
 - 임시직은 14만 1천 명이 증가. 15~24세(9만 7천 명) 및 50대 이상이 주도.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만 4천 명), 음식·숙박업(6만 1천 명), 건설업 등이 임시직 증가 주도
 - 일용직은 3만 6천 명 감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 6천 명 증가. 건설업(1만 2천 명)과 음식·숙박업(2만 명), 교육업, 보건복지업이 증가세를 주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4천 명 감소. 농림어업(6만 2천 명), 음식·숙박업(2만 7천 명), 개인서비스업(2만 8천 명)의 감소폭이 큼
 -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3천 명 감소. 특히 40대의 감소가 눈에 띈
-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둔화. 건설업 취업자도 소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다시 큰 폭으로 감소
- 제조업은 14만 1천 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주로 40대(3만 7천 명)와 50대(6만 6천 명), 남성(10만 7천 명), 상용직(16만 9천 명)에서 주로 증가했으며,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7만 6천 명)에서 고루 증가
 - 서비스업은 24만 2천 명 증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55세 이상(38만 4천 명), 여성(22만 7천 명)에서 주로 증가. 상용직(17만 8천 명)뿐만 아니라 임시직(15만 4천 명)의 증가가 매우 큼. 일자리는 주로 중소기업(20만 1천 명)에서 증가. 업종별로는

- 도소매업(8만 5천 명), 음식·숙박업(7만 9천 명), 보건복지업(15만 8천 명), 교육업(7만 6천 명)에 의해서 주도. 그러나 금융보험업(6만 6천 명), 공공행정(5만 1천 명), 개인서비스업(5만 명)의 감소폭이 지속 또는 확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증가폭 축소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금융보험업에서는 주로 여성 취업자가 감소하였는데 소규모 보험회사에서 인력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개인서비스업에서 남성 취업자가 7만 6천 명 감소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0만 4천 명 감소. 주로 60대 이상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함. 감소세 둔화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건설업은 7만 명 증가. 취업자 증가는 주로 55세 이상 남성 임시직(2만 8천 명)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 2천 명)가 주로 증가하였음

◎ 입직과 이직 모두 증가

- 입직은 5만 4천 명 증가. 중소 서비스업의 상용직과 임시직에서 주로 증가
- 이직 증가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4만 명)와 “작업여건 불만족”(2만 1천 명)으로 인한 이직 증가의 영향이 큼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4년 12월 명목임금(3,646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실질임금은 1.9% 상승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873천 원)은 초과급여(9.2%)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3.4%) 상승폭의 둔화와 특별급여(-3.8%)의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상승에 그침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1,422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실질임금으로 환산하면 상용근로자는 1.1%, 임시·일용근로자는 0.9% 증가
- ◎ 2014년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대비 2.5% 상승에 그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190천 원)은 정액급여의 상승폭(3.2%) 둔화와 특별급여의 감소(-3.7%)로 전년동기대비 2.4% 상승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387천 원)은 전년동기대비 0.7% 상승에 그침
 -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을 감안하면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은 1% 초반 상승에 그치고, 임시·일용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13년보다 줄어듦
- ◎ 2014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4.1%로 전년동월에 비해 0.6%p 상승
 - 2014년 12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82.5%로 전년동월 80.6%를 약간 상회
 - ◎ 2014년 12월 근로시간(180.1시간)은 근로일수 증가로(21일→22일) 전년동월대비 3.2%(5.5시간) 증가
 -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8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소정근로시간 증가(3.2%)로 초과 근로시간은 소폭(-0.8%) 감소
 -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5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 한편, 2014년 평균 근로시간(171.4)은 전년에 비해 0.7% 감소
 -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177.1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 소정근로시간은 0.9% 감소했지만, 초과근로시간이 3.2% 증가
 -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117.0시간)은 4.5% 감소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